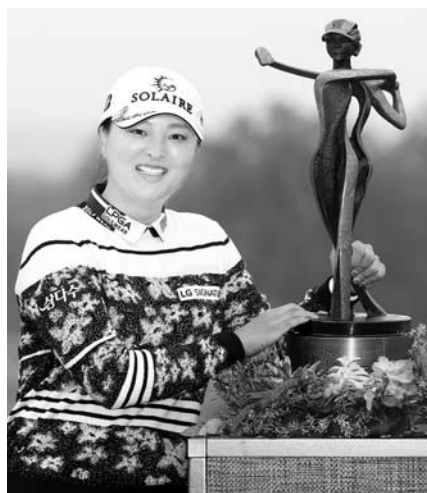


고진영·임성재 첫 동반 우승 '금자탑'

임성재 PGA 칠드런스 오픈 한국 선수 통산 20승 달성

고진영 LPGA 파운더스컵 투어 통산 10승·대회 2연패



11일 열린 LPGA투어 파운더스 컵에서 우승하며 대회 2연패를 한 고진영(왼쪽)과 PGA 칠드런스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한국 선수 통산 투어 20승을 달성한 임성재.



2002년 5월 최경주(51)가 컴팩 클래식에서 처음 우승한 이후 2011년 5월 역시 최경주의 플레이어를 챔피언십이 10승째였고, 이번 임성재가 20승 이정표를 세웠다.

제주출신 임성재(23)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총상금 700만 달러)에서 우승했다. 임성재는 11일(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TPC 서머린(파 71·725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9개를 몰아치고 9언더파 62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24언더파 260타의 성적을 낸 임성재는 1년 7개월 만에 PGA 투어 정상에 복귀했다.

PGA 투어 100번째 출전한 대회에서 통산 2승을 달성한 임성재의 이번 대회 우승상금은 126만 달러(약 15억 원)다. 이 우승으로 한국 선수들은 PGA 투어에서 통산 20승째를 쌓았다.

2002년 5월 최경주(51)가 컴팩 클래식에서 처음 우승한 이후 2011년 5월 역시 최경주의 플레이어를 챔피언십이 10승째였고, 이번 임성재가 20승 이정표를 세웠다.

한국 선수의 PGA 투어 우승은 올해 5월 이경훈(30)의 AT&T 바이런 넬슨 이후 5개월 만이다. 같은 날 여자골프 세계랭킹 2위 고

진영(26)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통산 10승을 달성했다.

고진영은 11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 칼드웰의 마운틴 리지 컨트리클럽(파71·6612야드)에서 열린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총상금 300만 달러) 최종 4라운드까지 합계 18언더파 266타를 써내 카롤리네 마손(독일·14언더파 270타)을 4타 차로

파돌리고 우승했다.

7월 VOA 클래식, 9월 캄비아 포틀랜드 클래식에 이어 고진영의 이번 시즌 3승이자 LPGA 투어 통산 10번째 우승이다.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은 45만 달러(약 5억3000만원)다.

LPGA 투어에서 10승을 채운 한국 선수는 박세리(25승), 박인비(21승), 김세영(12승), 신지애(11승)에 이어 고진영이 5번째다.

고진영은 한국어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도 10승을 보유했다. 박세리(국내 14승), 신지애(국내 21승)와 더불어 한국, 미국 투어 모두 두 자릿수 승수를 올린 선수가 됐다.

2017년 10월 국내에서 열린 LPGA 투어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것을 계기로 미국 무대에 본격적으로 진출해 2018년 1승을 올렸고, 2019년 4승, 지난해 1승, 올해 3승을 거뒀다. 2019년 파운더스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2년 만의 타이틀 방어전에 나선 고진영은 대회 2연패에도 성공했다.



제주도선수단 전국체전 '메달 행진'

11일 금3·은6·동4 획득 목표메달 10개 초과 달성 수영 첫 금메달 등 '두각'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선수단이 선수들의 선전에 힘입어 목표메달(10개)을 초과 달성했다.

제주도체육회는 대회 4일차인 11일 오후 4시 기준 도선수단이 금메달 3개, 은메달 6개, 동메달 4개 등 총 13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대회 둘째날인 지난 9일 금1, 은3, 동2 등 6개의 메달을 수확하며 패조의 출발을 보인 선수단은 10일엔 5개의 메달(금1, 은2, 동2), 11일에는 2개의 메달(금1, 은1)을 추가로 가져오는 등 메달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수영에서만 7개의 메달이 터지는 등 두각을 보였다.

대회 나흘째인 11일에는 자전거와 수영에서 메달 릴레이가 이어졌다.

지난 10일 자전거 여자 19세 이하부 스크래치 경기에서 동메달을 딴 김은송(영주고 2)이 이날 20km포인트 트라이스 경기에서 2위인 이주은(경북대학교)을 1점 차이로 제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김예림(남녕고 3)은 1m스프링 경기에서 226.95의 점수로 은메달을 거머쥐었다. 김예림은 지난 10일 수영 여자 19세 이하

부 3m스프링 경기에서는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지난 8일 개막해 오는 14일까지 경북 일원에서 진행되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에 제주는 22개 종목에 174명의 선수가 출전하고 있다.

다음은 메달획득 현황(11일 오후 4시 기준).

▶금메달(3개) ▷수영 남자 19세 이하부 3m스프링 김대운(남녕고 3)·박지혁(남녕고 2) ▷여자 19세 이하부 3m스프링 김예림(남녕고 3) ▷자전거 여자 19세 이하부 20km포인트레이스 김은송(영주고 2)

▶은메달(6개) ▷수영 여자 19세 이하부 플랫폼 싱크로 설윤재(남녕고 3)·윤유빈(남녕고 1) ▷여자 19세 이하부 3m스프링 설윤재(남녕고 3)·김예림(남녕고 3) ▷남자 19세 이하부 플랫폼 싱크로 김대운(남녕고 3)·박지혁(남녕고 2) ▷여자 19세 이하부 1m스프링 김예림(남녕고 3) ▷씨름 남자 19세 이하부 경장급 홍지혁 ▷댄스스포츠 19세 이하부 라틴5종목(시범) 이설희(영주고 3)·허현준(서귀포고 2)

▶동메달(4개) ▷씨름 남자 19세 이하부 용사급 김원빈 ▷수영 여자 19세 이하부 플랫폼 윤유빈(남녕고 1) ▷볼링 남자 19세 이하부 2인조 강태영(남녕고 3)·신예범(남녕고 2) ▷자전거 여자 19세 이하부 스크래치 김은송(영주고 2) 오은지

개막전 '셋별' 반짝... 코트에 새바람

KBL 신인들 데뷔전 눈도장

프로농구 2021-2022시즌 개막과 함께 새내기 선수들의 활약이 코트에 새바람을 불어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열린 신인드래프트에서 프로의 지명을 받은 선수들이 바로 시즌 개막전부터 출전해 기량을 뽐냈다.

KBL 신인 드래프트가 정규리그 개막 이전에 열린 것은 올해가 다섯 번째이자 2016년(10월) 이후 5년 만이었다. 올해 신인들은 기량이나 신체조건 등에서 우수한 자원이 많아 일찌감치 기대를 모았다. 각 팀 사령탑도 개막전부터 새내기들을 기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전체 1~3순위 이원석(서울 삼성), 하윤기(수원 kt), 이정현(고양 오리온)을 비롯해 4순위 신민석(울산 현대모비스), 7순위 정호영(원주 DB), 8순위 신승민(대구 한국가스공사) 등이 이번 시즌 개막전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르며 기대감을 키웠다.

가장 두드러졌던 것은 연세대 2학년 재학 중 프로 진출을 이룬 2000년생 '빅맨' 이원석이었다. 올해 드래프트 참가자 중 키가 가장

큰 이원석(206.5cm)은 10일 창원 LG와 홈 개막전에서 18분 46초를 뛰고 10점을 기록하며 자신이 왜 1순위인지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고려대 출신 센터 하윤기는 같은 날 DB와 홈 경기에서 25분 45초라는 비교적 넉넉한 출전 시간을 보장받으면서 8점 3리바운드 2블록슛을 기록했다.

가드 최대어로 꼽히는 연세대 출신 이정현은 오리온의 개막 2연패에 모두 나섰다. 9일 서울 SK전에서는 17분 16초를 뛰며 6점 3이시스트, 10일 전주 KCC전에서는 15분 17초 동안 코트에 서며 5점 3리바운드의 성적을 냈다.

현대모비스를 이끌이갈 재목인 신민석도 9일 한국가스공사와 개막전에서 21분 42초 동안 코트를 누비며 3점슛 1개를 포함한 9점 3리바운드를 기록했다.

이번 시즌에는 초반부터 신인들이 활약을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할 전망이다. 보통 프로농구 시즌 개막과 맞물리던 전국체육대회가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고등부 경기만 개최되면서 모처럼 대학 졸업을 앞둔 신인들은 시즌 초반부터 꾸준히 출전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내 공이야' 11일 강원 원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20-2021 프로농구 원주 DB 프로미와 울산 현대모비스 피바스의 경기에서 원주 DB 메이틴과 현대모비스 장재석이 리바운드를 다투고 있다. 이날 경기는 원주 DB가 81-69로 승리했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광장 8:25 아침광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1:20 필도발상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8: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부 9:00 KBS 아침 뉴스타임 9:20 국가대표 와이프(재) 10:00 인강광장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연모(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에겐 해피플러스 8:50 두 번째 남편(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쁜 좋은 날 10:45 글로벌 도메이션스 W 스페셜 11:45 똑딱꾸조대(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5 JIBS 아침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박스 8:50 좋은 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특집 생방송 오늘 11:00 꾸러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7:30 숲속 배달부 빙빙 8:00 덩동생 유치원 8:30 유망탐방 운하안전단 9:40 우리집 유치원 12:10 바닷가 사람들 13:00 일단 해봐요 15:25 클래식 16:00 마사와 곰 16:30 덩동생 유치원 18:00 생방송 워터지 해결단 19:05 하트가 빛나는 순간 19:50 극한직업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12 13:00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만사 13:50 안녕 우리말 2021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2 14:30 KBS네트워크특선 빅 부리더 15:05 2021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명창대전 16:00 사시간간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탐나는 제주	12:15 생생정보 스페셜 12:55 두면타리 3일(재)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키오까 15:30 TV 유채원 16: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6:50 세계의 공영방송 가차+(재) 17:50 통합뉴스룸 ET	12:00 12 MBC 뉴스 12:20 아무튼 출근 스페셜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뽀빠뽀 뽀뽀(재) 15:55 기쁜 좋은 날(재) 16:55 5 MBC 뉴스 17:1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12:00 SBS 12뉴스 12:25 JIBS 뉴스 12:50 신발 벗고 돌싱포맨(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내모세요(재) 17:00 SBS 오뉴스 17:35 JIBS 뉴스 17:50 JIBS 특집 미리글작성, 108시간의 기록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00 김기영의 아침뉴스 7:2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그대창가에 김성훈입니다 12:00 CBS 뉴스 12:05 찬양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생 15:00 CBS 뉴스 17:05 시사세거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한민승부 21:30 오고자강단 22:05 백원경의 가스펠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보물섬 20:30 국가대표 와이프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역사재설 그날 22:50 더 라이브 23: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8:30 2TV 생생정보 19:50 빨강 구두 20:30 노래가 좋아 21:30 연모 22:50 유럽발의 문제아들	18:05 테마여행 길 19:05 두 번째 남편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아무튼 출근 22:30 PD수첩 23:30 검은레망(재)	18:50 2021 제주 독서대전 북콘서트 가을밤 책의 선물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9:30 2021 서귀포문화제이행 13:10 마스터의 혼자리도 관참이 14:00 제주청소녀리포트 15:10 U-HD 제주산책 15:20 2021 서귀포문화제이행 17:00 KCTV 뉴스 17:40 KCTV 시청자대상 18:30 세계의 99번상	7:00 KCTV 뉴스 8:00 제주청소녀리포트 8:30 세계의 99번상 9:00 KCTV 뉴스 9:30 2021 서귀포문화제이행 13:10 마스터의 혼자리도 관참이 14:00 제주청소녀리포트 15:10 U-HD 제주산책 15:20 2021 서귀포문화제이행 17:00 KCTV 뉴스 17:40 KCTV 시청자대상 18:30 세계의 99번상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KBS ☎ 064-740-7331 / MBC ☎ 064-740-2432 / JIBS ☎ 064-740-7800 / KCTV ☎ 064-741-7723 / 제주CBS ☎ 064-748-7400

오늘의 운세 12월

김종상 지단(해마)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과다한 기대나 행동은 금물. 경쟁자가 생기고 질투의 대상이 된다. 48년 대인관계의 화합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라. 60년 문서 이사, 매매 등이 길하고 이익이 있다. 72년 모임 또는 음주에 신경을 것. 84년 격려와 충고를 중심으로 받는 자에게 최선이다.

37년 긍정적 생각이 힘이 된다.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겨라. 49년 문서관련 재물이 있으나 계약상사 때때 송사에 기쁨이 있다. 61년 자기 세력이 커지니 마음먹은 일은 자신을 갖고 추진하라. 73년 직장인은 화합을 유도하는 리더십이 필요. 85년 마음먹은 것이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다.

38년 생각이 없는 기쁜 소식이나 선악이 생긴다. 50년 활동성은 왕성해지나 자금 지출이 따른다. 62년 동업자나 협조자가 있으나 의타심을 갖는 것은 화가 될 수 있다. 74년 승진의 기회가 오거나 좋은 위치로 옮길 수 있다. 86년 세로움에 도전하거나 변동을 원한다.

39년 해결되지 않던 일이나 주변의 도움으로 일이 풀려 나간다. 51년 일의 성과가 미약하거나 질투자의 등장으로 감정의 기복이 있다. 63년 부부간 다투면 힘겨워지니 관용이 필요하고 먼저 화해. 75년 상대방과 경쟁 시 미워하는 마음보다 선의에 경쟁을 하라. 87년 전문성을 갖거나 전문가로 거듭나자.

40년 노력한 만큼의 즐거움과 이익이 온다. 52년 여행이나 외출할 일이 생기니 문단속 철저. 64년 현재에 만족해야 할 것 같다. 욕심내면 타는 경우가 온다. 76년 밝은 표정으로 상사를 대하면 좋은 기운이 오고 인정받는다. 88년 원하고 희망하는 취업이나 만남은 아니지만 이뤄진다. 최선을 다하라.

41년 백신 또는 금정적 손해가 따르니 주의. 53년 내실을 기하는데 집중해야. 가정안에서는 부부간 의견 차이로 불화. 65년 뒷사람이나 부모님의 소식이 있으나 분주해지고 고민만 가득. 77년 사소한 시비나 언쟁이 확대되는 격으로 만사 조심. 89년 사사로운 감정이 있다면 풀려야 안풀린 굴이 깊어진다.

42년 동업자나 거래처에서 내게 도움을 청하면 오늘은 정중히 거절하는 지혜가 필요. 54년 신중함과 여유를 가져야 손해가 적으니, 급할수록 돌아가라. 66년 사소한 실수가 비웃음이 될 수 있다. 78년 재물이든 이익이든 또는 이가 있어 만나서 형통. 90년 독단적 행동은 자제하고 주변과 협동하는 게 좋다.

43년 매출이 증가되나 일시적인 현상. 이익은 미약하다. 55년 급진적 시비가 발생하니 돈거래는 신중하는 것이 좋다. 67년 직장인은 명예에 모든 상사로 부터 능력을 인정받고 고가점수에 반영됨. 79년 여행이나 외출할 일이 생긴다. 이성교의 길. 91년 가벼운 운동은 정신을 맑게 해주는 묘약.

44년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영입하면 이익이 있다. 56년 재물이 있지만 투기는 신중해야 한다. 68년 친한 친구와 사소한 일로 불화하거나 이성교에 의해 말썽로 헤어짐도 있다. 80년 열심히 일한 결과를 얻게되니 선배나 윗분께 칭찬이 많다. 92년 문서계약 매매거래가 길하다. 과음 주의.

45년 할 일이 아직 잔재돼 있어 몸이 분주하다. 57년 계산상 착오가 생기거나 머뭇거리다 손재가 발생하니 기회를 잘 활용할 것. 69년 할 일이 늘어나니 몸이 따르지 않고 마음만 바쁘다. 81년 집안에서 결혼에 관한 문제가 오고 간다. 부모님과 상의도 필요. 93년 과로 또는 음주로 건강에 적신호가 오니 조심.

46년 사회생활이나 가정적으로 변동의 근심수가 오니 배려하는 마음을 먼저 갖자. 58년 남편 또는 경제적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된다. 70년 경제적 도움을 주는 일을 하거나 역할을 해야 한다. 82년 이성교제의 만남에 다소 불협화음이 있으니 긍정적 화합이 필요. 94년 형제의 문제로 변동, 변화가 온다.

47년 주변 오는 것이 있으니 배플 수 있는 기회가 나 에겐 행운. 59년 자금문제로 다툼이 생기니 주의. 가정의 화목은 믿음과 배려에서 출발. 71년 자녀나 종업원으로 인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교육이 우선. 83년 대인관계를 위해 내가 먼저 마음을 열자. 95년 오고 가는 정속에 믿음이 오거나 대화가 필요하다.